

제 175 호

사순 제 4 주일

1976. 3. 28.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법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3.1절 기도회 사건으로 입건된 사제들을 위한 미사 강론

김 수 환 추기경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지향으로 함께 모여 기도드리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물론 이 기도의 직접적 동기는 지난 3월 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3·1절 기념 기도회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신부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함께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치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자는 뜻에서 여기 모였습니다.

오늘 저녁, 이 기도의 모임 자체도 좋으나 나쁘나로 우리 가운데 이견이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저 역시 그 걸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도의 모임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우선 집안에 우환이 생겼고, 그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이 있으니 한집안의 식구끼리라도, 모여서 걱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데 있었고, 더 큰 이유는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옥고를 치루는 형제들을 위해서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하느님께 달려들고 그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빛을 간구하는 외에 달리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신부님들을 무조건 잘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아주 잘못했다고도 생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이 명백하고, 다만 그들 나름대로 신앙적 소신과 사체적 양심에서, 또한 애국심에서, 이나라와 겨레를 보다 밝고, 보다 의로운 나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에서 행동했음을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탓한다면 방법론에서 탓할 수 있겠고, 재작년 지학순주교님의 구속사건 이래 가진 여러차례의 기도회에서 때때로 과격하지는 않았다 하는 점을 탓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분명히 좋은 것이었고, 또 신앙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근본적 관심사는 정치체제 이전에 사회정의와 인권 옹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현재교회의 가르침입니다. 1971년에 있었던 주교 씨노두스는 세계정의에 대한 문제를 다룬 문서에서 뚜렷이 교회는 사회정의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가르쳤고 "사회정의구현의 노력은 복음선교의 본질적 요소이다"라고까지 천명했습니다. 또한 1974년의 주교 씨노두스가 교황님과 함께 발표한 인권옹호에 대한 메세지를 통해 "인권의 옹호는 오늘의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의 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밖에 역대 교황들의 사회최치 및 공의회와 가르침은 교회가 과거의 개념

인 협의의 구명사업에서 벗어나, 바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아니 인간을 전인적으로 발전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모든 나라와 온 세계가 그리스도안에 보다 인간적인 나라가 되고 그러한 세계가 될 수 있겠음 현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치·경제·문화 모든 분야에 교회가 복음의 정신을, 정의와 사랑을 널리, 또한 깊이 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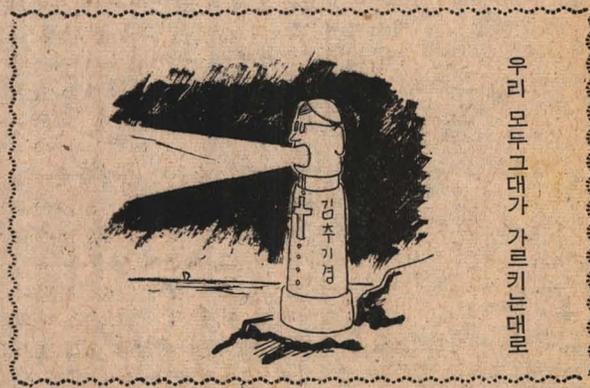
저 개인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부님들은 이 같은 교회의 가르침을 몸으로 증거하고 실천에 옮겨 보겠다는 뜻에서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철형 그들이 방법에 있어서, 또는 표현에 있어서 과격한 점도 있었고, 또 오늘의 한국교회의 신앙인식에 거슬리는 점이 있었다 손 치드라도, 그들이 던진 문제 자체에 대해서 교회는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던진 문제는 오늘의 교회는 복음적 증거에 있어서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등 ! 불우한 형제들에게 대한 관심에 있어 교회는 너무나 미흡하고,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한 사제가 저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적한 것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열 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죄인등 모든 불우한 형제들에게 향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오늘 복음의 말씀을 풀이하면 「하느님이 이 불우한 사람들을 특별한 사랑과 자비로 대하시듯이, 여러분도 이들에게 특별히 사랑과 자비를 가지시오」하는 말씀입니다.

숲 정 이 산책



우리 모두 그대가 가르키는 대로

(2) 순 정 이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써 참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 속에 먼저 현존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전체적인 면에서 과연 이런 사람들 속에 현존해 있는가? 이런 사람들과 그들의 고통을 나누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인가? 우리는 진정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 보아야겠습니다.

복음의 예수님을 보면 그는 분명히 먼저 이런 사람들 속에 계셨습니다. 그는 마치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 억눌린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편애라도 가지신 듯 언제나 그들 편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도가나 부자나 오만한 자 편에 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통속적인 의미의 정치가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통속적인 현중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 사회와 백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법률학자나 바리새이들을 향해서 "이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같은 자들아!" 하시면서 질책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였으며 바른 길에서 오도하였는지 지적하시며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미움을 샀고, 백성을 선동하는 자로 몰려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복음에 의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 위하는 길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정치가는 아니셨지만 - 진리와 사랑으로써 백성들을 율법과 위선적 제도의 비인간적 굴레에서, 죄에서 구원하여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이런 제도의 희생이 되고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억압과 천대를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문제로 눈길을 돌려 봅시다. 한국교회는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부한 교회는 아닙니다. 도시교회에 있어서도 교회 성원의 대부분은 중이하의 서민층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봉사하는 교회의 이미지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부하지도 않은데 왜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의식구조 속에, 특히 우리들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의 의식구조 속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아니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진해서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를 거의 모두가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우리는 모두 너무나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사제가 가난한 사람들 속에 자진해서 들어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예수님을 참으로 본받는다면 우리는 먼저 이 사제와 같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가난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해야 할텐데, 어찌서 나 자신부터 이것을 기이하게 느끼고, 이런 일이 오늘의 교회 안에서는 예외의 경우가 되고 말았는가?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인물이나 시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의식구조 속에는, 또한 생활가치관과 양식에서는 이것은 모두 예외의 경우입니다. 그 때문에 남들은 혹시 오늘날 교회가 사회정이나 인권옹호에 앞장 선 것같이 볼지 모르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이것 역시 소수요, 예외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모두 교회 안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이 교회에 대하여 섭섭함과 고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곁에 있어서 그들은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제자까지도 도망친 그 수난의 길을, 십자가에 못박히는 그 죽음의 길을, 그리스도는 홀로 갔습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사제들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정치가는 아니었는데, 스스로 왕이라 하여 정권 탐욕을 가진 자 처럼 몰렸듯이, 이 사제들도 같은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같은 누명을 씌울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었듯이, 이 사제들도 백성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나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같은 죄목으로 돌을 던질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많은이가 그들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경솔했다고 지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탄하고 질책하기에 앞서 그들은 어쩌면 우리들 중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 불우한 자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과연 심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복음은 말씀대로 우리는 남을 함부로 심판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도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쉽게 단죄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도 단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이를 너그럽이 형제적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이번 시련이 지금은 대단히 괴롭지만, 주께서 이 거룩한 사순절을 계기로 지나 여러분에게, 한국교회 전체에 주신 쉼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확실히 수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피린토 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드러나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길은 그 진리의 말씀을 말로써 전하는데만 있지 않고, 그 진리를 몸으로 증거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진리가 가리운 사회 속에, 진리의 소리가 질식되어 있는 사회속에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진리 때문에 수난을 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의의 증거, 사랑의 증거가 그러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까지라도 바치는 그런 희생과 수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요청됩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바로 이런 소명을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느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삼아 교회가 깊이 자아반성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신될 때에 한국교회는 진정 그리스도의 수난을 고백하고 부활을 믿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살아서 어두움과 싸워 이긴 자만이 죽어서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하셨고, 우리의 모든 순교선열들이 그러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겨레에게 남기셨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오늘 이시간 마음속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또한 겨레의 자주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치시고 온 겨레의 스승되시는 도산선생님의 이 말씀, 이 교훈앞에는 여도 없고 야도 없을 것입니다. 위정자나 국민을 막론하고 모두가 공명을 아니느낄수 없을 것입니

다.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와 온 겨레가 교훈으로 삼고 따라야 할 불멸의 금언입니다. 온 겨레가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합심하여 따를 때 우리겨레의 단합도 이룩되고, 통일도 이룩되고, 세계사에 빛나는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신부님들과 마음으로 동조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받아드리고, 반대자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단죄하는 사람들을 단죄하여 여러분 스스로 하느님의 엄한 심판을 받지않을까 염려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서도 원수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참으로 이같은 사랑만이 오늘의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아침 Anthony Bloom이 쓴 "살아있는 기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뜻깊고 아름다운 기도를 읽고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돼야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도는 2차대전시 독일나치의 강제노동 수용소 안에서 한 유대인이 쓴 것입니다

악한 이에게 평화를 주소서! 모든 복수심과 증오와 보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종말을 고하게 하소서! 죄악이 모든 척도를 능가하고 있으며, 인간의 이해심은 더 이상 이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순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당신의 공정한 저울위에서 그들의 고통을 제지마시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체에 의한 정확한 고통을 주지 마옵소서. 이들에게는 달리 보답하소서! 사형을 주관하는 사람들, 반역자, 모든 악한 인간들에게는 용기와 영적인 힘과 결손과 위엄과 끊임없는 내적인 노력과 희생과, 눈물을 거두는 미소와 죽음, 아니 가장 연약한 순간에 있어서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랑을 마음에 내려주소시오. 오 주여! 이 모든 것들이 당신 앞에 죄의 관용을 위해 놓여지고, 악이 아닌 선을 고려해 주소시오! 그리고 저희들은 적대감을 가진자들의 기억속에서 회한으로서가 아니라, 또한 악령이나 유령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범하는 죄악에서 벗어나려 할때 도움을 줄수 있는 자되게 하소서! 저희가 원하는것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후에는 저희로 하여금 사람으로서 사랑중에 살수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가난한 지상에도 선한자와 악한자에게 평화가 오게 해주소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이같은 사랑을 우리는 차차 익혀가야 하겠습니다.

사도바오로의 말씀대로 "사랑은 모든것을 덮어주고 모든것을 믿고, 모든것을 바라고 모든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가실줄을 모릅니다."

이같은 사랑이, 사랑 자체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이강론은 3월15일저녁6시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주교 8분과 200여명의 사제들과 약 2,300여명의 신자가 참례한 미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한 강론의 초다)

요심이 (39) 리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원준(야교버)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열 중앙 시장통
(전화 ② 4577)

교우들의 집단장은!

동양 페인트

현재 가격에서 10% 할인판매
(단 교우에 한함)

● 전주 뇌병원 옆
전화 ②2765·5986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남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② 6094

타자기 수리

전주 뉴 타 자 학 원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송동 605-1
원장 신송무(바오로)
전화 ⑤ 6 6 6 4

타자기수리, 취업알선, 수시점정

김용길 양복점

교우 여러분과 결혼 예물은
특별 염가 제공

정병준(정아우구스티노)
전주 중앙동 조흥은행 앞
전화 ② 3 5 1 9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 사진관(2층)

이상범(필노리아노)
육교열 구 부부배차장 옆
전화 ⑤ 6544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문정현 신부님께 보내는 헌금 78,241원 모아지다.

김재덕 주교님 서품 3주년 기념 미사에서 55,055원, 해상학교 교직원 미사에서 18,186원, 어떤 특지가 5,000원을 헌금해주시어 고통중에 계시는 문신부님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전달되었다.

2. 가톨릭 사상 대 강연회 (4월 6일<화>-9일<금> 강사...두 봉 주교 <안동 교구장>)

3. 전주 시내6개 분당 순회교육 (4월 3일<토> 오후 7시반 부터)각분당에서

4. 가톨릭 시보 구독자에게 알리 (가톨릭시보 본사에서 전주지사에 보내온 편지 全文) +주의 평화, 안녕하십니까? 전할 말씀은 "3월 21字(1002호) 시보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발행하지 못하고오니 양지하옵시기 바랍니다. 안녕히계십시오."

5. 3월 21일자 숲정이를 받지 못한 분당이나 공소는 알려주시기 바람.

6. 노송성당 성낙식(3월 19일)에 각 분당 신부님, 회장님, 교우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중앙)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이대동 권준용
보좌 신부 김희상 사도 회장 이상

- 1. 판공일정 : 3월 29일~3월 30일 (태평 1가1구 태평 2가)
- 2. 성심 부녀회 월례회 : 4월 2일 (금)
- 3. 방ziger 삼회 : 4월 4일 (오후 2시)
- 4. 사도회 월례회 : 4월 4일 (사도회 임원, 구역장, 반장 전원 참석 바람)
- 5. 의산 농원 공소기금 : 이종순<천원> 누계 38,200원
- 6. 금주 독서실 책 기증 : 8권 누계 192권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신부 공아영 사도 회장 조해형

- 1. 재속 형제회 : 10시 미사후
- 2. 봄 판공 일정 : 4월 6일 (남노송동) 7일~8일 (중노송 1가) 9일 (중노송 2가) 12일 (인후동) 13일 (우아동 신교리)
- 3. 어머니 합창단 피정 : 4월 2일 (오전 10시~오후 5시 까지) · 전원 참석 바람
- 4. 중, 고등 학생 정기총회 : 오늘 오후 2시 · 전원 참석 바람
- 5. 성당 신축 헌금 : 양광식(삼만원) 누계 4,589,927원
- 6. 성당 의자 헌금 : 노인석(3만원), 송금반(2만원) 양순래(5만원), 임영빈(2만원), 송철상(1천원) 무명(2천원) 누계 60,000원, 누계 1,593,33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환 사도 회장 김홍환

- 1. 부녀회 월례회 : 공석 미사후
- 2. 판공성사 : 공소(내동리) : 3월 29일~30일, 동산촌 : 3월 31일) 분당(4월간) : 4월 10일~4월 13일)
- 3. 반미사 : 4월 1일 (목), 덕진2반, 4월 2일 (금)금암3반
- 4. 청년회 춘계 특별 행사 : 4월 5일 (월)
- 5. 환경 미화 작업 : 3월 28일 (일)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 1. 봄 판공 성사 면담 : 빠짐없이 응하길 바람.
- 2. 봄 판공 성사 일정 : 제 1반~4반, 다가동 : 4월 5일 (월), 제5반~8반, 중앙동, 교사동, 완산동 : 4월 6일 (화), 제9반~12반 화산동 태평동 : 4월 7일 (수) 제 13반~제16반, 진북동, 효자동, 기타 : 4월 8일 (목) · 시간은 오후 4시~6시, 저녁 8시~9시 이니 시간 엄수 바람
- 3. 미사시간 변경 (4월 1일부터) : 주일(첫 미사 새벽 6시) · 공식미사(오전 10시), 어린이 미사(오후 4시) 평일 (월요일 : 새벽 6시, 월~토 : 저녁 7시 30부)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박장준

- 1. 금주 판공 일정 : 3월 30일 (오전 : 석장리, 오후 : 와어두리) 3월 31일 (내어두리)
- 2. 분당 순회교육 : 4월 3일~4일 ◎사도회 임원, 구역 회장, 반장님은 꼭 참석 바랍니다.
- 3. 다음주일은 애령회 주일 : 김병구(원선시오)씨 5,000원 회사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한불섭 사도 회장 양윤모

- 1. 글라라 형제회 : 오후 1시 30분 (회원들은 사순절 대 성미 지참)
- 2. 부제품 자 : 소순영, 이순성(품 받기전에 부당한 점 있으면 주임 신부께 보고 바랍니다)
- 3. 첫 영성체 준비 : 매일 오후 4시
- 4. 분당 순회교육 : 다음 토요일 오후 7시 30분(각 신심 단체별 그룹 토의)
- 5. 예비자 영세 특별교리 :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주간)
- 6. 가정 심방 : 전동, 중앙동, 다가동, 경원동 기타
- 7. 판공성사 : 부활전까지 미사전후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집 수 신 태 인 수 정	창 계 류 인 습	상하 공소 방문	3,515원	제 3 지구	주 현 인 등	예비신자 교리	55,100원	
			사도회 임원회	28,475원			어머니 성심회 월례회	51,825원	
			봄 판공실시	5,950원			간 신심 단체대표 모임	9,955원	
			학생회 임원 개편	3,850원					
		청년회 애령회 월례회	16,755원						
제 2 지구	대 아 야 돌 윤 동 동 월 명 동 동 중 량 열	성사는 빠짐없이 봄이다	봄 판공실시 유아영세	7,110원	제 4 지구	중 앙 노 송 동 동 덕 복 서 학 동 동 전	사도회 월례회	65,301원	
			가리마스 월례회	48,855원			재속 형제회	43,675원	
			신용협동조합 총회	30,460원			환경미화 작업	21,842원	
			그리스도왕 뿌리아 회합	20,285원			미사시간 변경	27,481원	
		그리스도왕 뿌리아 회합	17,310원			공소 판공 실시	18,270원		
						글라라 형제회	81,865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산 산 산 레	다음 주일은 분당 식목일	각 분과별 4월행사 계획작성	4,450원	제 5·6 지구	무 장 전 진 남 순 인	판공 성사 실시	4,605원	
			부활절을 뜻있게 보낼시다	13,610원			사도회 청년회 월례회	3,085원	
			연령회 월례회	7,480원			자모회,봄판공 실시	9,325원	
				14,710원			청년회 월례회 성모회 월례회	13,225원	
						판공 성사실시	5,500원		